

집단 실체성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 개발*

이 향 수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집단 실체성이란 집단이 단순한 개개인의 모임이 아닌 한 덩어리의 개체처럼 지각되는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집단 실체성 연구들에서 사용한 실체성의 측정 문항들을 바탕으로 집단 실체성 척도를 만들고 그 하위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범주의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 대하여 지각되는 특성들을 예비 척도에 답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실체성은 '주체성'과 '본질성'으로 구성되고 주체성은 다시 '공동의 목표'와 '공동 운명', 본질성은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의 하위 요인을 갖는 두 수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 간에 실체성의 두 상위 요인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은 주체성, 본질성 점수가 다른 집단들의 점수에 비해 높았다. 업무 집단은 사회적 범주에 비해 주체성 점수는 높았지만 본질성 점수에서는 두 집단이 다르지 않았다. 느슨한 관계는 주체성, 본질성 점수 모두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았다. 본 연구는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밝힘으로써 집단 실체성의 이론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주요어 : 집단 실체성,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

* 본 논문은 석사논문을 수정한 논문임.

† 교신저자: 박상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2-763)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E-mail: sangheepark@chungbuk.ac.kr

집단(group)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거나 동일한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라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McGrath, 1984). 집단에 대한 이와 같은 넓은 정의에 따르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적으나마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함께 지칭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무리는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그다지 집단이라고 이야기되지 않는다. 반면 스포츠 팀이나 락 밴드, 중산층 등은 ‘집단’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비교적 덜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집단에만 집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Campbell(1958)은 특정 집단에만 집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현상에 주목했고 집단이 지각될 때 실제로 존재하는 독립체(entity)처럼 지각되는 성질을 집단의 실체성(entitativity)이라 명명했다. 실체성이 높게 지각되는 집단은 실체성이 낮게 지각되는 집단에 비해 집단의 의지,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Castano, Sacchi, & Gries, 2003; Plitt, Savjani, & Eagleman, 2015) 집단 내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지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Lakens & Stel, 2011).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은 실체성이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고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포츠 팀이나 락 밴드는 실체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Lickel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실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나아가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 다양한 집단에서의 집단 실체성 요인 수준의 변화를 밝혔다.

집단 실체성 연구의 이론적, 사회적 함의

집단 실체성은 집단에 대한 정보처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므로(김범준, 송관재, 이훈구,

1997) 집단 자체에 대한 지각과 집단의 행동 해석, 집단이 갖는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 실체성은 핵심적인 변인으로서 기능한다. 실체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는 마치 하나의 개인을 볼 때와 유사한 인지 과정을 거치게 되며(McConnell, Sherman, & Hamilton, 1997; Plitt, Savjani, & Eagleman, 2015), 반대로 집단 실체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마음은 덜 지각된다(Morewedge, Chandler, Smith, Schwarz, & Schooler, 2013). 사람들은 실체성이 높은 집단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사용한다(Hamilton & Sherman, 1996). 실체성이 높은 집단은 더 쉽게 고정관념이 형성되고(Crawford, Sherman, & Hamilton 2002), 더 위협적으로 지각되며(Callahan & Ledgerwood, 2016) 메시지의 설득력이 더 높기도 하고(Rydell & McConnell, 2005) 더 극단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한다(Abelson, Dasgupta, Park, & Banaji, 1998). 사람들은 내집단이 실체성이 높을 때 더 강한 집단 정체성과 만족감을 느낀다(Castano, Yzerbyt, & Bourguignon, 2003).

학교 내 친구 집단 사이의 갈등부터 국가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은 집단 실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역 감정, 인종 간의 갈등 문제 등 사회에는 여러 집단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그 중 하나는 각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이다. 집단 간 편견에 대한 Effron과 Knowles(2015)의 연구에 의하면 내집단의 높은 지각된 실체성은 외집단에 편견을 표현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고 한다. 내집단의 높은 집단 실체성이 자기 개념이 불확실한 대상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Hogg, Sherman, Dierselhuis, Maitner, & Moffitt, 2007) 외집단에 대해서는 편견의 표현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집단의 지각된 실체성에 대한 이해는 집단 간 갈등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집단 간 갈등의 원리에 대한 이해는 집단 간 갈등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체성에 대한 이해는 집단의 책임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준다. 집단 성폭행, 홀리건(hooligan) 등과 같이 여러 명의 개인들이 개입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집단의 실체성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집단의 실체성이 높게 지각되는 경우에는 집단이 마치 별개의 의지와 판단 능력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어,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집단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Lickel 등의 연구에 따르면(Denson, Lickel, Curtis, Stenstrom, & Ames, 2006; Lickel, Schmader, & Hamilton, 2003) 사람들은 집단 실체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된 집단에 대해서 집단적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더 강하게 물으며, 그 결과 특정한 문제적 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 구성원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Newheiser, Sawaoka, 그리고 Dovidio(2012)의 연구에서도 집단 전체에 대한 처벌을 내릴 때 집단 실체성이 낮은 집단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집단 실체성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화는 일상 생활에서 집단 구성원의 잘못, 집단의 잘못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각을 확인하고 실제 법정에서의 판단과 같은 중요한 판단 상황에서 집단 평가의 기계에 관한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집단 실체성은 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지각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집단 실체성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에 따라 집단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래 상술할 것처럼 집단 실체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 실체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개념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기반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집단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더 용이하게 하고 연구 흐름들을

하나의 체계로 아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실체성의 개념

집단 실체성의 개념을 이루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에 따라 집단 실체성과 관련된 요인이 많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각 연구들마다 집단 실체성에 대해 다르게 개념화하고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했다. 집단 실체성을 처음 언급한 Campbell(1958)은 Wertheimer(1923)의 지각 조직화(perceptual organization)의 원리에 입각하여 집단 실체성 개념을 이루는 요인을 근접성(proximity), 유사성(similarity), 공통 운명(common fate), 응집성(pregnance)이라고 주장하였다. 근접성이란 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elements), 즉 개인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지각되는 것을 말하며 유사성은 개인들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특성을 말한다. 공통 운명이란 개인들이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하고 응집성은 대상이 하나의 응집된 형태로 지각되는 것 즉, 덩어리처럼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집단 실체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널리 인용되는 연구 중 하나인 Haslam, Rothschild, 그리고 Ernst(2000)의 연구는 본질주의(essentialism)의 차원 중 하나로 집단 실체성을 지목하였다. Haslam 등은 사회적 범주(categories)마다 특유의 핵심적인 본질(essence)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인 본질주의(Medin & Ortony, 1989)의 구성 개념 중 하나로 집단 실체성을 지목하였고 집단 실체성의 하위 요인을 균일성(uniformity), 정보적 가치(informativeness), 고유성(inherence), 배타성(exclusivity)이라고 주장하였다. Haslam 등의 연구에서 균일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비슷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말하며 정보적 가치란 구성원에 대한 정보가 집단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성은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타

성은 집단 외부의 사람에 대한 배제를 나타낸다. 균일성과 정보적 가치, 고유성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Campbell이 주장하는 유사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Lickel 등(2000)은 집단 실체성과 관련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는 집단 실체성(“집단이라고 정의된다”라는 문항으로 측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이 ‘상호작용(interaction)’, ‘결과(outcomes)’, ‘유사성(similarity)’, ‘중요성(importance)’, ‘목표(goals)’라고 주장했다. ‘상호작용’이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관찰자들이 집단을 집단으로 지각하고 정의하기에 좋은 특성이다(Freeman & Webster, 1994). Campbell(1958)은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대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유사성과 소속감, 공통 운명 등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과 Campbell이 주장하는 요인 중 구성원들이 가깝게 지각되는 근접성이 밀접하게 관련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결과를 말하며 발전 과정의 결과, 지각 과정의 결과 등을 포함한다(Cartwright & Zander, 1960; Tajfel, 1981; Lickel 등, 2000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서로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결과와 Campbell의 연구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그래서 같은 결과를 겪게 되는) 공통 운명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상정한다. ‘유사성’은 Campbell의 주장과 일치하는 요인이고 나머지 요인인 ‘목표’와 ‘중요성’은 각각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 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집단의 중요성을 말한다. Lickel 등(2000)의 연구는 집단 실체성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였지만 집단 실체성의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개념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않았다. 더욱이 Lickel 등의 연구는 실체성의 측정에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Lickel 등(2000)과는 다른 접근을 사용하여, 집단 실체

성이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다수의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Campbell(1958), Haslam 등(2000), Lickel 등(2000)의 연구 이외의 다른 연구들은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조직성(organization; Carpenter & Radhakrishnan, 2002; Rydell & McConnell, 2005; Spencer-Rodgers, Williams, Hamilton, Peng, & Wang, 2007 등), 집단성(groupness; Demoulin et al., 2006; Kurebayashi, Hoffman, Ryan, & Murayama, 2012 등) 등을 지목하였다. 이처럼 각기 다른 연구들이 집단 실체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통일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집단 실체성 연구의 결과가 각기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 유사하거나 인접한 개념들이 무엇인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

Brewer, Hong, 그리고 Li(2004)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집단 실체성이 크게 본질적(essential) 차원과 주체적(agentive)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였고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주체성(agency), 본질성(essence)이 집단의 지각되는 실체성(덩어리로 지각되는 특성과 하나의 단위로 지각되는 특성을 측정; whole, coherent unit)을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Brewer 등의 연구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집단이란 고정되고 공통된 특질, 핵심 본질에 근거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본질성이 높은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높은 유사성을 나타내며 다른 집단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적, 성별, 인종 등이 같은 사람들은 본질적 특성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집단은 공유된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공통 운명을 경험한다. 주체성이 높은 집단은 구성원이 다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의 특성이 유

연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팀, 락밴드 등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Brewer는 집단 실체성이 본질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으로 나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지만 각각의 차원이 포괄하는 하위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ewer의 집단 실체성 차원 분류 방법은 사용하지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밝혔다.

집단 실체성의 예상 요인 구조

기존의 여러 연구들(Brewer et al., 2004; Campbell,

1958; Haslam et al., 2000; Lickel et al., 2000)을 살펴본 결과 집단 실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집단 실체성의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들을 고려하여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그림 1a 참조).

각 연구들을 토대로 예상할 수 있는 집단 실체성의 구성 요인은 상호작용, 공동 운명, 공동의 목표, 중요성, 조직성, 유사성(고유성, 균일성, 정보적 가치 포함),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이 다. 특별히 유사성은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다른 개념들을 포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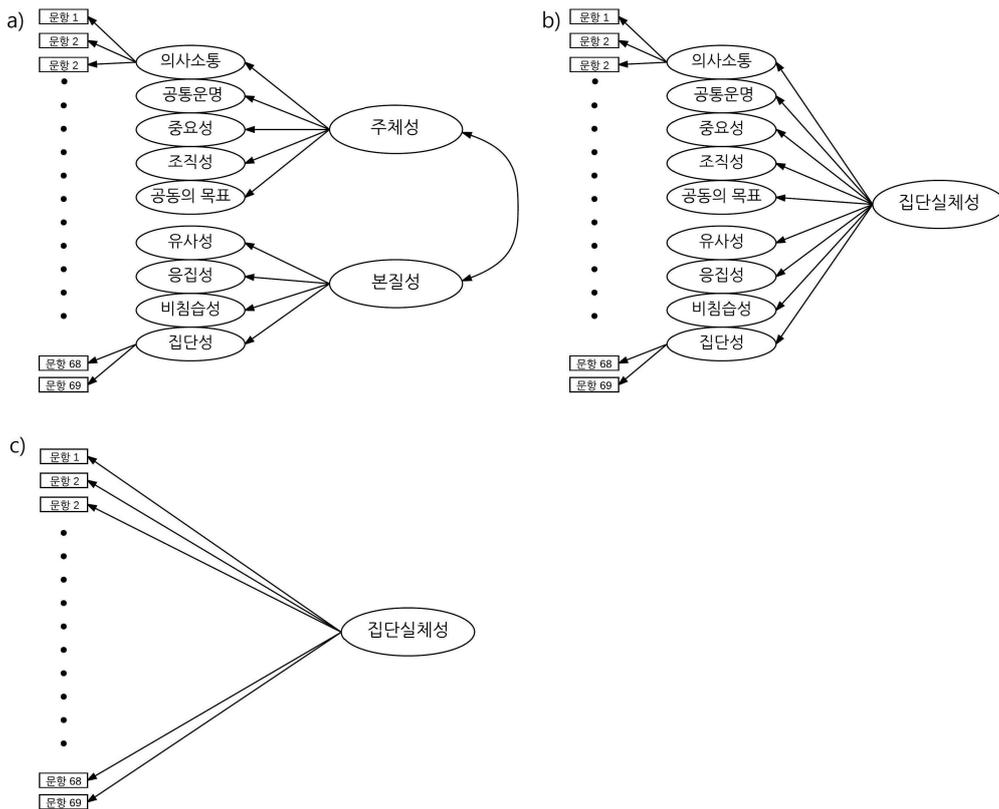


그림 1. 집단 실체성의 모형(9 요인). a: 아홉 요인/두 차원 모형(가설 모형). b: 아홉 요인 모형(대안 모형 1). c. 한 요인 모형(대안 모형 2).

으로, 유사성의 개념에는 위에서 언급한 고유성 (Spencer-Rodgers, Williams et al., 2007), 균일성 (Castano et al., 2003), 정보적 가치(Demoulin et al., 2006; Denson et al., 2006)뿐만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Piliatoha & Brewer, 2006) 역시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Brewer 등(2004)의 연구에 따라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을 이루는 요인들이 주체성과 본질성의 두 상위 요인으로 묶일 것이라 예상했다. 한 집단이 하나의 실체로서 지각되려면 그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매우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replaceable) 요소들로 지각되어야 하고, 또한 전체가 같은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Brewer 등(2004)의 개념화는 이러한 실체성의 두 측면들(즉 형태/구성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들)을 조명하고 실체성의 세부 특성들을 분류화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로 볼 수 있다. Brewer 등에 의하면 집단 실체성의 주체성 상위 요인은 미래 지향적이고 집단의 효율성에 집중하며 집단의 목적이나 상호작용 등을 반영한다. 따라서 주체성 상위 요인에는 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했다.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은 집단 구성원들의 유사성과 비슷한 행동,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구성원들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결과 대상이 하나로 지각되는 응집성과 구성원들 사이의 유사성, 새로운 사람에 대하여 배제하는 비침습성,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서 지각되는 직관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집단성 등이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에는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집단 실체성의 대상 집단

본 연구에서는 Lickel 등(2000)의 집단 분류 방

법에 따라 네 종류의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였다. Lickel 등(2000)의 집단 분류 방법에 의하면 집단들은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로 나뉘며, Brewer 등(2004)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 실체성의 두 연속 차원인 주체성과 본질성의 높고 낮은 정도의 조합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친밀한 집단이란 가장 높은 집단 실체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친밀감이 높고 상호작용이 잦으며 친밀감, 소속감, 또는 신체적이거나 경제적 웰빙 등을 공동의 목표로 추구하는 집단이다(예: 가족, 친구; Lickel et al., 2000). Brewer 등(2004)의 집단 실체성의 두 차원인 주체성과 본질성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업무 집단은 두 번째로 높은 집단 실체성을 보인다. 크기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작지만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예: 락 밴드, 항공기 승무원 등). 업무 집단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주체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본질성은 낮은 집단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범주란 국적과 성별, 인종 등에 기반한 집단의 형태로 크기가 크고 구성원들의 유사성이 높으며 집단이 지속되는 기간은 길지만 집단 내 상호작용이 적다(예: 대한민국 사람, 성별). 대개 타고나는 속성에 의한 집단이기 때문에 본질성은 높지만 주체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느슨한 관계란 주로 일회적인 관계를 말한다. 집단에 가입하거나 집단에서 나오는 것의 어려운 정도, 즉 비침습성(impermeability)이 낮으며 지속 기간이 짧고 집단 실체성이 낮다(예: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영화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 느슨한 관계는 주체성과 본질성이 모두 낮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ckel 등(2000)의 집단 분류 방법이 사회의 전반적인 집단을 포함한다고 판단되어 각 종류별로 하나씩의 집단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에게 그 속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연구 가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1. 집단 실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의 하위 요인들로 묶일 것이다.

가설 2.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는 집단 실체성의 주체성 상위 요인으로 묶일 것이고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은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에 포함될 것이다(그림 1a). 이 모형은 아홉 개의 요인들이 집단 실체성의 단일 요인에 포괄되는 대안 모형(그림 1b)이나 각 문항들이 각각의 하위 요인에도 묶이지 않고 직접 집단 실체성에 부하되는 대안 모형(그림 1c)보다 적합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다양한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서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가설 4. 집단의 종류에 따라 실체성 점수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집단 실체성 점수는 친밀한 집단에서 가장 높을 것이고 사회적 범주와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서로 차이가 없을 것이며 느슨한 관계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가장 낮을 것이다. 주체성 상위 요인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사회적 범주에 비해 업무 집단에서 더 높을 것이고 본질성 상위 요인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사회적 범주에서 업무 집단에 비해서 더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이다.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등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Hutcheson와 Sofroniou(1999)에 따라 요인분석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150명으로 설정하였고, 자료 수집의 부담을 줄이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독립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각 집단당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가 집단의 수(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 맞춰 600명의 참가자가 각자 두 집단씩 평가를 하여 총 120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같은 자료를 두 개의 요인분석에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각 참가자의(서로 다른 집단에 대한) 답변이 양쪽 분석에 사용되었으므로 두 자료 세트는 완벽하게 독립적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업 과제를 위해 연구에 참가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 및 온라인 설문 사이트 등을 통해 참가한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받았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교실, 심리학과 실험실, 참가자의 가정, 기타 참가자가 참가하기 편한 장소에서 설문지, 컴퓨터, 핸드폰 및 태블릿 등으로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연구 설명서를 읽고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참가에 동의할 경우 참가자는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다음’ 버튼을 누름으로써 동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참가자들은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 속하는 집단 중 무작위로 선택된 두 개의 집단들에 대해 집단 실체성의 예상 하위 요인인 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 문항들에 답을 하였다. 각 문항

은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이후 참가자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답을 한 후 연구에 대한 사후 설명서를 읽었다. 연구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연구의 모든 과정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하여 승인받았다.

측정도구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연구들(Carpenter & Radhakrishnan, 2002; Castano, Yzerbyt, Paladino, & Sacchi, 2002; Rydell & McConnell, 2005; Demoulin et al., 2006; Denson et al., 2006; Piliialoha & Brewer, 2006; Stenstrom, Lickel, Deonson, & Miller, 2008; Newheiser, Tausch, Dovidio & Hewstone, 2009; Smith et al., 2013 등)에서 사용했던 문항들 중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고 부족한 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심리학 전공 박사와 석사과정 대학원생 및 심리학과 학부생 일곱 명이 판단하여 이전 연구의 문항 중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항, 여러 요인에 대해 동시에 묻는 것으로 평가된 문항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수는 각 요인당 아홉 개 이하였다. 집단 실체성 예비 척도에 사용된 문항 수는 69개였다(부록 1).

참가자들은 Lickel 등(2000)이 분류한 네 종류의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중 무작위로 선택된 두 집단에 대하여 집단 실체성 예비 척도에 각각 답을 하였다. 친밀한 집단으로는 ‘어느 한 가족’을 사용하였고 업무 집단은 ‘항공기 승무원들’을 사용하였다. Lickel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국민, 폴란드 국민, 여성, 흑인, 유대인 등의 집단을 사회적 범주 집단으로 사용하였지만 특정 국가를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이미지가 문항에 대한 답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국가’를 사회적 범주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느슨한 관계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이

평소 각 집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통의 평균적인 집단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받았다(예를 들어 “보통의 평균적인 국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 실체성의 주체성의 하위 요인들

상호작용. 상호작용(interaction)이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말한다(Lickel et al., 2000). 상호작용 요인을 확인하는 문항은 Carpenter와 Radhakrishnan(2002), Demoulin 등(2006), Newheiser 등(2009)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 집단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 것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이 집단 내에서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며 살 것이다” 등 일곱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공통 운명. 공통 운명(common fate)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Campbell, 1958). Lickel 등(2000)의 연구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통 운명을 묻는 문항으로는 Castano 등(2002), Demoulin 등(2006)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같은 운명을 함께 겪을 것이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등 여덟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common goals)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의미하며(Lickel et al., 2000) Brewer 등(2004)이 주장하는 집단 실체성의 주체성 상위 요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집단의 목표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노력이나 상호 의존 등을 포함한다. 공동의 목표를 묻는 문항으로는 Demoulin 등(2006), Rydell과 McConnell

(2005), Newheiser 등(2009)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집단의 목표를 잘 실현할 것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등 일곱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중요성. 중요성(importance)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이 집단 및 집단의 구성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Lickel et al., 2000; Rydell & McConnell, 2005). 중요성 요인을 확인한 문항으로는 Lickel 등(2000), Rydell과 McConnell(2005), Newheiser 등(2009)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중요할 것이다”, “이 집단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중요할 것이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이 집단에 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등 일곱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조직성. 조직성(organization)이란 집단이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분업하며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Carpenter와 Radhakrishnan(2002), Kurebayashi 등(2012)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은 조직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고 집단을 구성할 것이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며 집단을 구성할 것이다” 등 일곱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의 하위 요인들

유사성. 유사성(similarity)이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비슷한 특성을 말하며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적 특성(예: 색, 모양)을 포함한다(Morewedge, Chandler, Smith, Schwarz, & Schooler, 2013). 유사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Rydell과 McConnell(2005), Demoulin 등(2006), Stenstrom 등(2008)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의 구

성원들은 집단 내에 공유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은 많은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이다” 등 여덟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응집성. 응집성(pregnance)이란 케슈탈트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대상이 하나의 응집된 형태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Campbell, 1958). Campbell의 실체성에 대한 정의인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가질 수 있는 특성 즉, 독립체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요인이다. 응집성은 집단 구성원들에게서 느껴지는 결속력, 근접성, 친밀감, 집단에 대한 애정을 포함한다. 응집성을 묻는 문항은 Carpenter와 Radhakrishnan(2002), Kurebayashi 등(2012), Postmes, Haslam, 그리고 Jans(2013)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단합할 것이다” 등 아홉 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비침습성. 비침습성(impermeability)이란 집단에 속한 사람은 집단을 나가기 어렵고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집단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나타낸다(Haslam et al., 2000). 비침습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는 Haslam 등(2000), Rydell과 McConnell(2005), Denson 등(2006)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집단에 소속이 되면(같은 종류의) 다른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이 집단은 외부 사람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집단이다” 등 일곱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집단성. 집단성(groupness)이란 집단이 집단이라는 하나의 존재로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성질을 말한다. 집단성을 묻는 문항으로는 Demoulin 등(2006), Kurebayashi 등(2012) 등을 참고하여 “이 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

다”, “이 집단은 흔히 말하는 ‘집단’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 집단은 ‘집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등 아홉 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부록 1 참조).

결 과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 총 아홉 개의 요인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이란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상관을 기반으로 문항의 수를 줄이고 관련된 문항들을 요인들로 묶어서 통계적 효율성을 높여주는 통계 기법이다(Norris & Lecavalier, 2010).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와 Brewer 등(2004)의 연구를 토대로 집단 실체성은 주체성, 본질성 두 개의 상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체성은 공동의 목표와 공통 운명, 본질성은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요인의 관계가 체계화되거나 논리화된 특정 개념에 대해 선행 연구에 기반한 문항들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Floyd & Widaman, 1995).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대안적인 모형보다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대안 모형과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대안 모형은 두 개의 상위 요인(주체성, 본질성)이 불필요하다는 대안 모형(그림 1b)과 두 개의 상위 요인과 아홉 개의 하위 요인(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대안 모형(그림 1c)이다.

다양한 집단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모형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기반한 요인분석 방법이다.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두 개 이상일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둘 이상의 집단에서 얻은 결과가 동일한지를 나타내는 교차타당성을 검증할 때 사용된다(Jöreskog & Sörbom, 1989; Floyd & Widaman, 199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집단(어느 한 가족), 사회적 범주(어느 한 국가), 업무 집단(항공기 승무원들), 느슨한 관계(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네 개의 집단에서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종류에 따라 집단 실체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이 응답한 두 집단에 대한 자료 중 무작위로 선택된 한 집단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집단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평균 비교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참가자가 어느 한 국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했다면 두 집단 중 한 집단의 자료(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한 집단의 자료(어느 한 국가)는 확인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평균 비교에 사용되었다. 응답이 누락된 결측치의 추정치를 구하고 추정치를 모수로 대체하는 방식을 반복하여 최상의 기댓값을 찾아내는 EM(Expectation-Maximization) 처리 방식으로 예측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성의 없는 참가자의 자료(한 번호로만 답변한 자료) 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587개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 KMO (Kaiser-Meyer-Olkin)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준치인 .9보다 큰 .99로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상관계수 행렬과 대각행렬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두 행렬은 일치하지 않았고($\chi^2 = 52336.12, p < .001$)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요인들 간의 최소한의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인 분석에 앞서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의 수를 구했다. 평행 분석을 통해 정해진 요인의 수는 여섯 개였다. 요인의 수를 여섯 개로 고정한 뒤 사각 회전(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주축 요인 분석으로 각 요인을 이루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평행 분석 과정과 부하량에 문제가 있는 문항(들 이상의 요인에서 부하량 .3을 넘는 문항, 어느 요인에서도 부하량이 .3을 넘지 않는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 요인의 수는 다섯 개, 문항의 수는 41개였다.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가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각 요인당 문항의 수는 최대 다섯 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부하량을 .7로 설정하였고 최소 문항의 수를 세 개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요인 부하량을 기준으로 상호작용 문항 다섯 개, 공동의 목표 한 문항, 중요성 한 문항, 응집성 일곱 문항, 공동 운명 네 문항, 유사성 한 문항, 집단성 두 문항, 조직화 한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집단 실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수는 다섯 개, 문항의 수는 19개로 결정하였다. 요인 1(Cronbach's $\alpha = .96$)에는 응집성 두 문항, 상호작용 두 문항, 중요성 한 문항이, 요인 2(Cronbach's $\alpha = .87$)에는 공동 운명 세 문항이, 요인 3(Cronbach's $\alpha = .95$)에는 집단성 다섯 문항이, 요인 4(Cronbach's $\alpha = .84$)

에는 공동의 목표 세 문항이, 요인 5(Cronbach's $\alpha = .87$)에는 비침습성 세 문항이 포함되었다(부록 2).

이 연구의 예상과 다르게 요인 1은 상호작용, 응집성, 중요성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고 있었다. 각 문항의 내용은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긴밀함, 상호작용, 끈끈함,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친밀함은 선행 연구들(Carpenter & Radhakrishnan, 2002; Lakens & Stel, 2011; Newheiser et al., 2012)에서도 집단 실체성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요인 1을 친밀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나머지 요인 2부터 요인 5까지는 같은 요인으로 예상했던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각 요인의 이름은 예상했던 요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즉, 공동 운명, 공동의 목표, 비침습성, 집단성). 각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한 결과 주체성의 하위 요인인 공동운명과 공동의 목표의 상관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보다 높았다. 또한 본질성의 하위 요인인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의 상관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관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 개의 요인 간 상관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한편 두 상위 요인들(주체성은 공동운명과 공동의 목표의 평균으로, 본질성은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의 평균으로 계산) 간의 상관은 $r = .66, p < .001$ 이었다. Brown(2006)에 따르면 요인 간 상관이 .80보다 크면 변별 타당도가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다섯 가지 하위 요인들과 두 가지 상위 요인들은 모두 집단 실체성을 이루는 구성 개념들로서 어느 정도 상관이 나타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주체성과 본질성, 그리고 다섯 가지 하위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평행 분석에 기반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상호작용 5*	.96	.02	.11	.01	.05
응집성 6*	.94	.02	.05	.01	.06
중요성 4*	.92	.05	.04	.03	.01
상호작용 6*	.92	.01	.12	.05	.10
응집성 1*	.90	.04	.03	.01	.02
상호작용 2	.88	.01	.04	.02	.07
중요성 7	.88	.04	.01	.00	.01
상호작용 4	.87	.01	.06	.00	.11
응집성 2	.85	.01	.07	.07	.05
상호작용 1	.85	.02	.02	.03	.08
상호작용 7	.81	.03	.02	.01	.04
응집성 9	.80	.01	.10	.04	.01
응집성 4	.80	.01	.07	.04	.03
응집성 3	.76	.04	.15	.05	.04
응집성 7	.75	.04	.11	.06	.09
응집성 5	.74	.00	.17	.05	.00
응집성 8	.74	.01	.15	.02	.04
상호작용 3	.72	.09	.19	.05	.06
공통 운명 6	.63	.23	.01	.07	.09
공통 운명 5	.56	.21	.03	.15	.03
공통 운명 3*	.06	.79	.01	.05	.09
공통 운명 8*	.02	.76	.11	.00	.01
공통 운명 7*	.03	.70	.08	.05	.08
공통 운명 1	.14	.64	.09	.16	.01
공통 운명 2	.01	.61	.10	.05	.18
유사성 1	.24	.41	.20	.10	.07
집단성 1*	.03	.03	.88	.00	.01
집단성 3*	.03	.09	.86	.03	.01
집단성 6*	.04	.04	.83	.08	.03
집단성 7*	.04	.01	.82	.04	.02
집단성 2*	.06	.01	.81	.03	.02
집단성 8	.13	.00	.70	.06	.06
집단성 5	.21	.02	.60	.08	.10
조직화 3	.09	.07	.47	.05	.21
비침습성 6*	.04	.01	.06	.87	.00
비침습성 2*	.00	.01	.02	.80	.03
비침습성 1*	.18	.08	.03	.63	.04
공동의 목표 1*	.12	.01	.01	.01	.78
공동의 목표 4*	.10	.20	.03	.05	.74
공동의 목표 6*	.07	.02	.15	.01	.61
공동의 목표 2	.22	.01	.23	.00	.53

*: 완성된 척도에서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

표 2. 집단 실체성 요인 간 상관

	1	2	3	4	5
1. 공통운명					
2. 공동의 목표	.61**				
3. 친밀성	.55**	.52**			
4. 비침습성	.43**	.33**	.61**		
5. 집단성	.57**	.54**	.77**	.55**	

** $p < .0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

집단 실체성의 상위 두 요인(주체성, 본질성)이 하위 요인들을 포괄하는 측정 모형이 대안 모형보다 적합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그림 1-a 모형을 그림 1-b, 1-c 모형과 비교해야 하지만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맞춰서 그림 2-a 모형을 그림 2-b, 2-c 모형과 비교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가설 1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료로 성의 없는 참가자의 자료(한 번호만 응답한 참가자의 자료) 열한 개를 제외한 589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AMOS 22.0을 이용하여 이 연구의 제안 모형(그림 2-a)과 대안 모형(그림 2-b, 그림 2-c)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 실체성은 주체성, 본질성 두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체성은 공동의 목표, 공통 운명 두 요인으로, 본질성은 친밀성, 비침습성, 집단성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그림 2-a; 표 3). 그 결과, TLI 수치가 기준치인 .9을 넘었고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인 CFI 역시 기준치인 .9를 넘었기 때문에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차 평균 제곱근이 .05 이하일 경우 좋은 적합도를 가졌고 .08 이하이면 양호하고 .1 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뢰구간의 상한치가 .1을 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RMSEA의 값이 .08 이하이고 RMSEA의 신뢰구간의 상한치 역시 .1 이하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단 실체성은 두 개의 상위 요인(주체성, 본질성)이 불필요하고 다섯 개의 요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대안 모형을 검증하였다(그림 2-b; 표 3). 그 결과 TLI 지수와 CFI 지수 모두 적합도의 기준인 .9 값을 넘지 않았고 RMSEA 지수는 .1 이하이지만 신뢰구간 상한치가 .1을 넘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적합도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첫 번째 대안 모형(그림 2-b)은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그림 2-a)보다 적합도 지수가 좋지 않은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실체성은 두 개의 상위 요인과 아홉 개의 하위 요인(상호작용, 공통 운명, 중요성, 조직성, 공동의 목표, 유사성, 응집성, 비침습성, 집단성)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두 번째 대안 모형(그림 2-c; 표 3)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TLI, CFI 수치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RMSEA 값 역시 기준치를 넘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이 대안 모형들에 비해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더 잘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확인한 모형의 요인 부하량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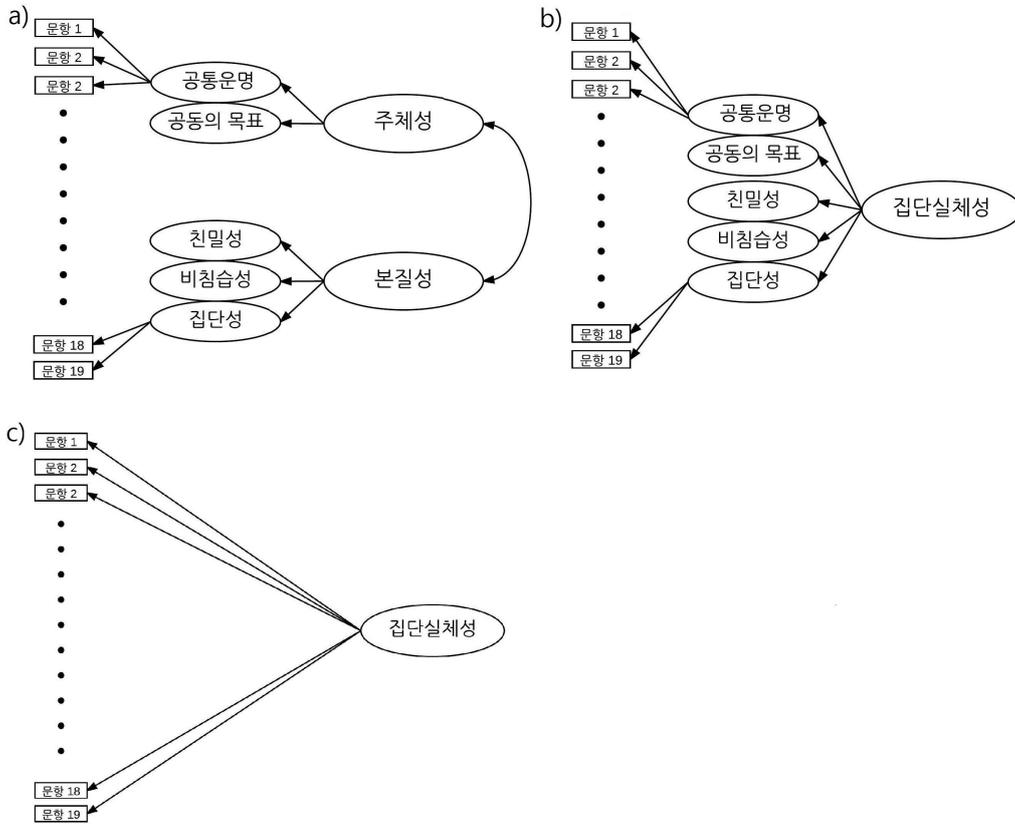


그림 2. 집단 실체성의 모형(5 요인). a: 두 차원/다섯 요인 모형, b: 다섯 요인 모형. c: 한 요인 모형.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두 상위 요인, 다섯 하위 요인 (그림 2-a)	535.154	146	.953	.960	.067(.061, .073)
다섯 하위 요인 (그림 2-b)	316.549	147	.853	.874	.088(.074, .101)
단일 요인 (그림 2-c)	818.019	152	.442	.504	.171(.160, .183)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다양한 대상 집단에 대해 본 연구가 제안하는 집단 실체성의 모형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래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이란 둘 이상의 표본 집단에서 동일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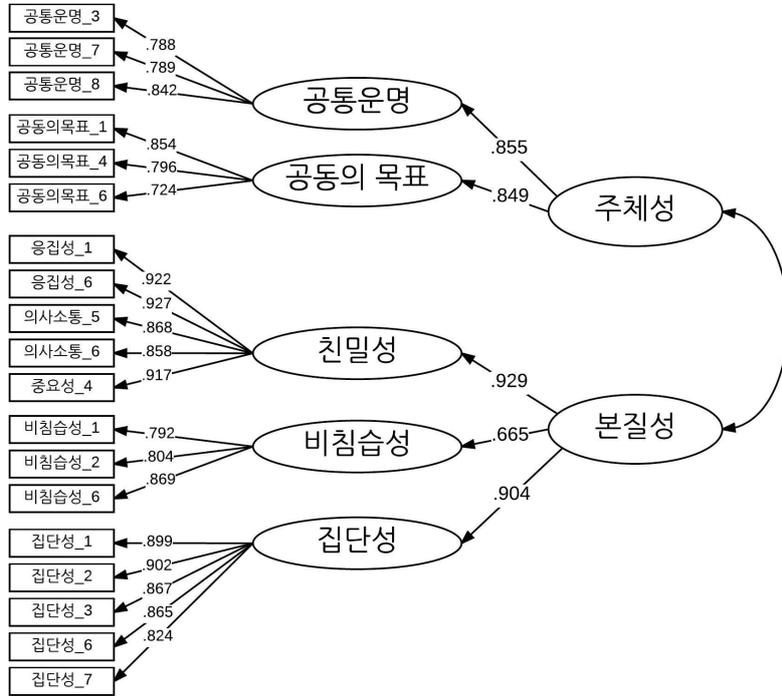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에서 지지된 두 차원/다섯 요인 모형. 각 문항과 요인 사이의 부하량.

부하량, 공분산 등을 제약했을 때 비제약 모형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만약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요인 부하량 제약 모형, 공분산 제약 모형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제약을 가한 부분은 각 표본 집단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제약 모형과 요인 부하량 제약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각 표본 집단에서 요인 부하량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서로 다른 대상 집단에 대해서 같은 요인 구조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검증에 사용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된 자료와 동일하다.

AMOS를 이용하여 어느 한 가족, 어느 한 국가, 항공기 승무원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각 집단에서 집단 실체성에 대하여 동일한 요인 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과 요인 부하량 제약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그림 2-a 모형의 구조는 네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서 모두 동일하고 잠재요인 경로는 다르지만 요인 부하량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네 분류의 집단에서 집단 실체성은 두 상위 요인, 다섯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모형(그림 2-a)은 집단의 지각된 실체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간 평균 비교

집단의 종류에 따라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 점수(주체성 평균, 본질성 평균, 전체 평균)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4를 증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표 4. 두 상위 요인/다섯 하위 요인 모형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그림2-a)

모형	χ^2	df	GFI	CFI	RMSEA	TLI	$\Delta\chi^2/df$	차이의 유의성
비제약	1053.294	584	.841	.916	.037	.901		
요인 부하량 제약	1105.973	626	.835	.914	.036	.906	52.679/42	유의하지 않음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경로 제약	1133.924	635	.831	.911	.037	.904	80.630/51	유의함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경로, 공분산 제약	1175.059	659	.826	.905	.038	.899	121.765/60	유의함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경로, 공분산, 구조오차 제약	1255.690	659	.819	.893	.039	.889	202.396/75	유의함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경로, 공분산, 구조오차, 측정오차 제약	1901.683	716	.761	.787	.053	.797	848.390/132	유의함

의 결과를 토대로 SPSS 22.0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집단의 종류에 따른 집단 실체성 점수는 차이가 있었다, $F(3, 585) = 263.37, p < .001, \eta^2 = .58$.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Tukey의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을 사용하였다(표 5). 확인 결과,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전체 점수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은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보다 집단 실체성 전체 점수의 평균이 높았다, $p < .001$. 또한 사회적 범주의 집단 실체성 점수 평균은 느슨한 관계의 집단 실체성 점수의 평균보다 높았다, $p < .001$. 본 연구의 예상과 다르게 업무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사회적 범주의 집단 실체성 점수보다 높았지만 집단 실체성 점수가 친밀한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주체성 상위 요인의 집단 실체성 점수와 본질성 상위 요인에서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업무 집단과 사회적 범주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범주보다 업무 집단의 주체성 상위 요인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높았지만, $p < .001$, 예상과 다르게 본질성 상위 요인에서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사회적 범주와 업무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p = .097$. 하지만 집단 내에서의 주체성 점수와 본질성 점수를 비교했을 때 업무 집단은 주체성 점수가 높고 사회적 범주는 본질성 점수가 높았다. 본 결과에 의하면 주체성 상위 요인에서 친밀한 집단은 업무 집단과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체성의 하위 요인인 공통 운명과 공동의 목표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각 $F(3, 585) = 53.12, p < .001, \eta^2 = .21$; $F(3, 585) = 69.00, p < .001, \eta^2 = .26$. 각 집단의 구체적 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의 HSD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공통 운명 점수와 공동의 목표 점수가 업무 집단보다 친밀한 집단에서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친밀한 집단보다 업무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집단 간

표 5. 집단 별 평균(표준편차)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주체성	4.80(0.88) _a	5.05(0.90) _a	4.03(0.96) _b	2.69(1.03) _c
공통 운명	4.41(1.17) _a	4.87(1.21) _b	3.92(1.23) _c	3.06(1.51) _d
공동의 목표	4.72(1.18) _a	5.40(0.99) _b	4.11(1.22) _c	3.38(1.56) _d
본질성	4.59(0.99) _a	4.39(0.99) _{ab}	4.12(0.98) _b	1.94(0.95) _c
친밀성	5.26(1.00) _a	4.89(1.03) _b	4.08(1.09) _c	1.63(0.79) _d
침습성	3.77(1.64) _a	3.44(1.44) _a	3.39(1.39) _a	1.62(1.06) _b
단성	5.43(0.96) _a	5.37(1.10) _a	4.85(1.11) _b	2.26(1.14) _c
전체	4.70(0.80) _a	4.72(0.85) _a	4.08(0.86) _b	2.31(0.89) _c

주. 같은 행에서 아래 첨자가 같은 점수들은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것을 의미함

공통 운명 점수, 공동의 목표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p_s < .001$. 사회적 범주와 느슨한 관계는 주체성과 주체성의 하위 요인인 공통 운명, 공동의 목표 점수가 모두 낮았다.

본질성 상위 요인에서 친밀한 집단은 업무 집단과 유사하게 지각되고 업무 집단은 사회적 범주와 유사하게 지각되었다. 본질성의 하위 요인인 친밀성 점수와 비침습성 점수, 집단성 점수 모두 각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각 $F(3, 585) = 410.09, p < .001, \eta^2 = .68$; $F(3, 585) = 71.46, p < .001, \eta^2 = .27$; $F(3, 585) = 287.45, p < .001, \eta^2 = .60$. 구체적인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의 HSD 방법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 그 결과 친밀성 점수는 예상과 같이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순으로 점수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비침습성 점수는 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느슨한 관계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집단성 점수는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사회적 범주와 느슨한 관계 순으로 점수가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에서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집단 실체성의 구성 요인은 공동의 목표, 공통 운명, 친밀성, 비침습성, 집단성이고 공동의 목표와 공통 운명은 집단 실체성의 주체성 상위 요인을, 친밀성과 비침습성, 집단성은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묶일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에서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 및 측정 문항을 통해 각 집단에서 지각되는 실체성을 측정한 결과,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순으로 집단 실체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집단 실체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단일 문항을 사용하거나 집단 실체성의 단면적인 특성을 물어

보는 문항들을 사용하여 집단 실체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양한 문항, 요인을 사용하여 집단 실체성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밝히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집단 실체성의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해짐으로써 집단 실체성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집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 실체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실체성의 확인을 위해 사용된 집단 분류 방법(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 Lickel et al., 2000)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집단 분류 방법이다. 또한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서 요인들이 유사한 요인 구조와 부하량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집단의 종류에 따라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점수의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즉, 본 연구는 다양한 집단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집단 실체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집단 실체성이 두 상위 요인으로 나뉜다는 Brewer 등(2004)의 이론적 주장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집단 실체성이 주체성, 본질성 두 상위 요인으로 나뉜다는 사실은 집단 실체성 측정의 구성 타당도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업무 집단은 주체성이 높고 사회적 범주는 본질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 실체성의 평균 점수는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업무 집단의 주체성, 본질성 점수는 사회적 범주의 점수보다 높았고 친밀한 집단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집단은 사회적 범주보다 집단 실체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Lickel 등(200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Lickel 등의 연구에서도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는 사회적 범주의 집단 실체성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

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집단과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같은데 비해 Lickel 등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집단의 집단 실체성 점수가 업무 집단의 집단 실체성보다 높게 지각되었다. Lickel 등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Lickel 등의 연구는 단일 문항으로 집단 실체성을 측정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항, 요인, 상위 요인을 기준으로 집단 실체성을 측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본 연구는 다양한 문항, 요인, 상위 요인들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가 단일 문항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에 비해 더 정확히 측정했다고 제안한다.

본질성 점수와 주체성 점수에서도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집단 분류 방법 중 업무 집단에서는 주체성 점수가 높고 사회적 범주에서는 본질성 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본질성 점수와 주체성 점수 모두 사회적 범주에 비해 업무 집단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에서 사용한 대상 집단(항공사 승무원들)의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자는 참가자가 평상시에 대상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 모호한 집단들을 사용하고자 계획했다. 하지만 업무 집단을 나타내는 항공사 승무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 집단에 대해서는 예상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들과의 모호성을 맞추기 위해 업무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어느 한 회사의 직원들’과 같은 집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상한 요인의 수보다 적은 요인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아홉 개의 요인을 설정하였지만 실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다섯 개의 요인이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던 문항 중 어느 요인에도 속하지 않거나 들

이상의 요인에 대하여 물어보는 문항, 또는 하나의 요인을 둘 이상의 요인으로 나눠서 물어본 문항과 같이 집단 실체성을 측정하기에 좋지 못한 문항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분석 과정에서 사라진 조직성 요인은 집단성 요인과 겹치는 문항이 많아 삭제하였고 유사성은 친밀함, 공통 운명에 이중 부하되어서 삭제되는 문항의 수가 많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새로 만든 요인인 친밀성은 상호작용, 응집성, 중요성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어떤 문항들은 하나의 새로운 요인으로 묶이고 어떤 문항들은 아무런 요인에도 속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확인되는 집단 실체성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집단 실체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예상한 하위 요인들은 학문적 내용에 기초하여 유추한 요인들이지만 연구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학문적인 내용에 기초한 것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을 보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과 다르게 요인의 수가 적게 나타난 것은 지각되는 집단 실체성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 자료가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지시문의 특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네 종류의 집단에 대해 연구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하나씩의 예를 제시하고 그 집단들에 대해 판단을 하게 하였는데, 각 참가자들이 떠올린 집단들의 특징은 연구자가 상정한 네 종류의 집단이 지닐 특징들과 거리가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종류의 집단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제시한 뒤에 집단에 대한 평정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단 실체성의 요인 구조를 밝히고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확인하였지만 참가자들이 평가한 네 개의 집단이 각각 단일 집단(어느 한 가족, 어느 한 국가, 항공사 승무원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하지만 각 집단은 그 분류 방법(친밀한 집단, 업무 집단, 사회적 범주, 느슨한 관계)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집단(Lickel et al., 2000)들을 사용하였고, 단일 집단을 사용했음에도 집단 내에서의 본질성 점수와 주체성 점수의 상대적 크기가 예상했던 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후의 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집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친밀한 집단으로 친구, 연인 관계 등이, 업무 집단으로는 조별 과제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집단이나 직업 집단 등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범주로는 각 성별 집단이나 인종 등, 느슨한 관계로는 특정 음악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집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을 직접 하나씩 제시하는 대신에 앞서 논한 것처럼 각 집단 유형의 정의를 제시한 뒤에 각각의 예를 들어주는 방법을 쓴다면 결과의 외적 타당도를 위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 집단, 게임에서 일회적으로 팀을 이루는 집단, SNS 상의 집단 등과 같이 새로운 기술의 대두와 함께 발생한 비대면 집단의 실체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 또한 집단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고 집단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성의 하위 요인 아홉 개를 제안하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다섯 개의 요인들로 정리됨을 보였다. 하지만 이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의 심사위원 한 분이 지적한 것처럼 집단의 형성 과정이나 크기,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 소속감 등도 실체성의 하위 요인들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측정 모형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무리를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특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변인들만을 포함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같은 관련 변인들

도 실체성의 하위 요인들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또는 실체성의 개념적 범위 밖에서 그것의 원인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들로 간주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개념이었던 집단 실체성을 구체화하고 집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지각되는 실체성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집단 실체성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단 실체성과 자기 개념의 관계를 확인한 Hogg 등(2007)의 연구에서 자기 개념이 불확실한 개인은 높은 실체성을 보이는 집단과 강하게 동일시한다. 하지만 집단 실체성의 본질성 상위 요인에는 비침습성이 속해 있고 이것은 개인이 새로운 집단에 소속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특성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 개념이 불확실하더라도 본질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서 동일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Hogg 등의 연구를 더욱 구체화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후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집단 실체성을 가진 집단도 주체성, 본질성 상위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범준, 송관재, & 이훈구 (1997). 집단실체성에 따른 집단지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57-74.
- Abelson, R. P., Dasgupta, N., Park, J., & Banaji, M. R. (1998). Perceptions of the collective 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4), 243-250. doi: 10.1207/s15327957pspr0204_2
- Brewer, M. B., Hong, Y. Y., & Li, Q. (2004). Dynamic entitativity: Perceiving groups as actors. *The psychology of group perception*, 19-29. doi: 10.4324/9780203644973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Guilford.
- Callahan, S. P., & Ledgerwood, A. (2016).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flags and logos: Group identity symbols increase perceived entit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4), 528-550. doi: 10.1037/pspi0000047
- Campbell, D. T. (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1), 14-25. doi: 10.1002/bs.3830030103
- Carpenter, S., & Radhakrishnan, P. (2002). The relation between allocentrism and perceptions of in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1), 1528-1537. doi: 10.1177/014616702237580
- Cartwright, D. E., & Zander, A. E. (1960). *Group dynamics: Research and theory* (2nd ed). Evanston, IL: Row, Peterson.
- Castano, E., Sacchi, S., & Gries, P. H. (2003). The perception of the oth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Evidence for the polarizing effect of entitativity. *Political Psychology*, 24(3), 449-468. doi: 10.1111/0162-895X.00336
- Castano, E., Yzerbyt, V., & Bourguignon, D. (2003). We are one and I like it: The impact of ingroup entitativity on ingroup identif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6), 735-754. doi: 10.1002/ejsp.175
- Castano, E., Yzerbyt, V., Paladino, M. P., & Sacchi, S. (2002). I belong, therefore, I exist: Ingroup identification, ingroup entitativity, and ingroup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135-143. doi: 10.1177/0146167202282001
- Crawford, M. T., Sherman, S. J., & Hamilton, D. L. (2002). Perceived entitativity, stereotype formation, and the interchangeability of 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5), 1076-1094. doi: 10.1037/

- 0022-3514.83.5.1076
- Demoulin, S., Leyens, J. P., & Yzerbyt, V. (2006). Lay theories of essentialism.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9(1), 25-42. doi: 10.1177/1368430206059856
- Denson, T. F., Lickel, B., Curtis, M., Stenstrom, D. M., & Ames, D. R. (2006). The roles of entitativity and essentiality in judgments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9(1), 43-61. doi: 10.1177/1368430206059857
- Effron, D. A., & Knowles, E. D. (2015). Entitativity and intergroup bias: How belonging to a cohesive group allows people to express their prejudi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2), 234-253. doi: 10.1037/pspa0000020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doi: 10.1037/1040-3590.7.3.286
- Freeman, L. C., & Webster, C. M. (1994). Interpersonal proximity in social and cognitive space. *Social Cognition*, 12(3), 223-245. doi: 10.1521/soco.1994.12.3.223
- Hamilton, D. L., & Sherman, S. J. (1996). Perceiving persons and groups. *Psychological Review*, 103(2), 336-355. doi: 10.1037/0033-295X.103.2.336
- Haslam, N., Rothschild, L., & Ernst, D. (2000).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1), 113-127. doi: 10.1348/014466600164363
- Hogg, M. A., Sherman, D. K., Dierselhuis, J., Maitner, A. T., & Moffitt, G. (2007). Uncertainty, entitativity, and group identif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1), 135-142. doi: 10.1016/j.jesp.2005.12.008
- Hutcheson, G. D., & Sofroniou, N. (1999). *The multivariate social scientist: Introductory statistics using generalized linear models*. London: Sage Publications.
- Kurebayashi, K., Hoffman, L., Ryan, C. S., & Murayama, A. (2012). Japanese and American Perceptions of Group Entitativity and Autonomy: A Multilevel 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2), 349-364. doi: 10.1177/0022022110388566
- Lakens, D., & Stel, M. (2011). If they move in sync, they must feel in sync: Movement synchrony leads to attributions of rapport and entitativity. *Social Cognition*, 29(1), 1-14. doi: 10.1521/soco.2011.29.1.1
- Lickel, B., Hamilton, D., Wierzchowska, G., Lewis, A., Sherman, S., & Uhles, A. (2000). Varieties of groups and the perception of group entit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23-246. doi: 10.1037/0022-3514.78.2.223
- Lickel, B., Schmader, T., & Hamilton, D. L. (2003). A case of collective responsibility: Who else was to blame for the Columbine High School shooting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94-204. doi: 10.1177/0146167202239045
- McConnell, A. R., Sherman, S. J., & Hamilton, D. L. (1997). Target entitativity: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bout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50-762.
- McGrath, J. E. (1984). *Groups: Interaction and performance (Vol. 14)*.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edin, D. L., & Ortony, A. (1989). Psychological essentialism. *Similarity and analogical reasoning*, 179-196.
- Morewedge, C. K., Chandler, J. J., Smith, R.,

- Schwarz, N., & Schooler, J. (2013). Lost in the crowd: Entitative group membership reduces mind attribution. *Consciousness and Cognition*, 22(4), 1195-1205. doi: 10.1016/j.concog.2013.08.002
- Newheiser, A. K., Tausch, N., Dovidio, J. F., & Hewstone, M. (2009). Entitativity and prejudice: Examining their relationship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ttitude certain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920-926. doi: 10.1016/j.jesp.2009.04.024
- Newheiser, A., Sawaoka, T., & Dovidio, J. F. (2012). Why do we punish groups? High entitativity promotes moral suspic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4), 931-936. doi: 10.1016/j.jesp.2012.02.013
- Norris, M., & Lecavalier, L. (2010).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developmental disability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1), 8-20. doi: 10.1007/s10803-009-0816-2
- Piliialoha, B. R., & Brewer, M. B. (2006). Motivated entitativity: Applying balance theory to group percep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9(2), 235-247. doi: 10.1177/1368430206062079
- Plitt, M., Savjani, R. R., & Eagelman, D. M. (2015). Are corporations people too? The neural correlates of moral judgments about companies and individuals. *Social Neuroscience*, 10(2), 113-125. doi: 10.1080/17470919.2014.978026
- Postmes, T., Haslam, S. A., & Jans, L. (2013). A single item measure of social identific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2(4), 597-617. doi: 10.1111/bjso.12006
- Rydell, R. J., & McConnell, A. R. (2005). Perceptions of entitativity and attitude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1), 99-110. doi: 10.1177/0146167204271316
- Smith, R. W., Faro, D., & Burson, K. A. (2013). More for the many: The influence of entitativity on charitable giv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9(5), 961-976. doi: 10.1086/666470
- Spencer-Rodgers, J., Hamilton, D. L., & Sherman, S. J. (2007). The central role of entitativity in stereotypes of social categories and task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369-388. doi: 10.1037/0022-3514.92.3.369
- Spencer-Rodgers, J., Williams, M. J., Hamilton, D. L., Peng, K., & Wang, L. (2007). Culture and group perception: dispositional and stereotypic inferences about novel and nation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4), 525-543. doi: 10.1037/0022-3514.93.4.525
- Stenstrom, D. M., Lickel, B., Denson, T. F., & Miller, N. (2008). The roles of ingroup identification and outgroup entitativity in intergroup retribu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1), 1570-1582. doi: 10.1177/0146167208322999

1 차원고접수 : 2017. 01. 05.
수정원고접수 : 2017. 04. 25.
최종게재결정 : 2017. 05. 23.

Factor Structure Exploration and Scale Development of Group Entitativity

Hyangsu Lee

Sang He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oup entitativity is a group trait to be perceived as a whole, singular entity, and not as a crowd of individuals. In this study, a Group Entitativity Scale was developed based on items from previous studies and its subfactors were examined. Participants reported perceived characteristics of four different group types (an intimacy group, a task group, a social category, a loose association) on a preliminary Group Entitativity Scale. The results show that a two-level model of group entitativity has a good fit. In the model, group entitativity consists of two distinct factors: Agency and Essence. Agency factor comprises common goal and common fate; Essence factor is composed of closeness, impermeability, and groupness. Meanwhile, when the four types of groups were compared on the two factors, Agency and Essence factor scores of the intimacy group and the task group were higher than the scores of the other two groups. Agency score of the task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ocial category;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Ess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Agency and Essence scores of the loose associatio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groups. This study reveals the factor structure of group entitativity, and thereby further reifies the concept and provides a method to measure it.

Keywords : group entitativit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easurement

부 록

부록 1. 집단 실체성 예비 척도

상호작용
1.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2. 이 집단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을 것이다.
3.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이 집단 내에서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며 살 것이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5.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할 것이다. ^a
6.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a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자주 주고 받을 것이다.
공동 운명
1.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같은 운명을 함께 겪을 것이다.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3.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b
4.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은 이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5. 이 집단은 공동 운명체이다.
6. 이 집단의 구성원 한 사람에게 좋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이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여러 사건들에 대해 공통된 과정과 공통된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b
8.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슷한 결과들을 함께 겪을 것이다. ^b
공동의 목표
1.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d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집단의 목표를 잘 실현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d
5. 이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이다.
6.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d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집단이 집단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할 것이다.
중요성
1.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중요할 것이다.
2. 이 집단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중요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이 집단에 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a
4.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이 집단의 중요성은 높을 것이다.
6. 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이 집단은 자신이 속한 다른 집단에 비해 중요할 것이다.
7. 이 집단에 속한 개개인들은 이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일 것이다.
조직성
1. 이 집단은 조직화되어 있을 것이다.
2. 이 집단의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고 집단을 구성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며 집단을 구성할 것이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집단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5. 이 집단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 내의 일을 분업하여 수행할 것이다.
6. 이 집단의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이 집단과 관련된 일을 역할에 따라 분담하여 수행할 것이다.

부록 1. 집단 실체성 예비 척도

(계속)

유사성	
1.	이 집단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집단 내에 공유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3.	이 집단은 많은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이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유사할 것이다.
5.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이 집단 특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6.	이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8.	어떤 사람이 이 집단의 일원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상할 수 있다.
응집성	
1.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3.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단합할 것이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잘 뭉칠 것이다.
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응집력이 강할 것이다.
6.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7.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잘 협력한다.
8.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잘 화합할 것이다.
9.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의존할 것이다.
비침습성	
1.	이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이 집단에 소속이 되면 (같은 종류의) 다른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3.	이 집단은 외부 사람이 들어가기에 어려운 집단이다.
4.	이 집단은 집단의 특성상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다.
5.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이 집단을 이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6.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같은 종류의 다른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7.	이 집단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다.
집단성	
1.	이 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이 집단은 흔히 말하는 '집단'의 조건을 만족한다.*
3.	이 집단은 '집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보통 한 집단의 단위로 행동할 것이다.
5.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 덩어리의 집단으로 느껴진다.
6.	이 집단의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실존한다.*
7.	이 집단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8.	이 집단은 하나의 덩어리와 같다.
9.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함께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윗 첨자가 같은 문항들은 같은 요인에 속해있다는 것을 의미함	

부록 2. 집단 실체성 척도

주제성: 공통 운명
1.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여러 사건들에 대해 공통된 과정과 공통된 결과를 경험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사건들과 비슷한 결과들을 함께 겪을 것이다.

주제성: 공통의 목표
1.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통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2.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본질성: 친밀성
1.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대화할 것이다.
2.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다.
3.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5.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이 집단에 속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본질성: 비침습성
1. 이 집단의 구성원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이 집단에 소속이 되면 (같은 종류의) 다른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
3. 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같은 종류의 다른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본질성: 집단성
1. 이 집단은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이 집단은 흔히 말하는 '집단'의 조건을 만족한다.
3. 이 집단은 '집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4. 이 집단의 사람들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실존한다.
5. 이 집단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할 수 있다.
